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十一世祖 贈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副摠管 行 軍器寺僉正公 諱 昌壽 (휘 창수) 墓碣銘



▶ 僉正公 휘 창수 묘소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리



▶ 묘비석

중망(衆望)이 있고 벼슬이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로 호남(湖南)에 일을 보러 나갔다가 객관(客館)에서 요절했으며 증직이 영의정이다. 어머니는 정경부인(貞敬夫人) 광주 이씨(廣州李氏)니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휘 연경(延慶) 호 탄수(灘叟) 선생의 따님이요 할아버지의 휘는 수원(守元)이니 증직이 이조참판(吏曹參判)이요 증조의 휘는 세좌(世佐)니 판중추 광양군(判中樞廣陽君)이요 외조는 이연원(李延源)이니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原州 사람이다. 공이 형제에서 둘째요 형님의 휘는 희수(喜壽)요 호는 일송(一松)이며 좌의정(左議政) 청성부원군이요 시호가 문정(文貞)이니 공은 그분의 아우이다.

공의 휘는 창수(昌壽)요 자는 백향(伯享)이며 호는 성암(省菴)이니 明宗 5년 경술(庚戌 1550 9월 16일)년에 출생했는데 이해 4월에 의정공(議政公)이 공주(公州) 관아(官衙)에서 돌아가니 공이 유복자로 산월이 임박하매 대부인께서 곡물을 입에 대지 않으므로 여러 번 환상을 이루었으나 마침내 능히 온전하였으니 사람들이 다 기이하게 여기었다. 공이 소시에 형님으로 더불어 돈녕공(敦寧公 : 공의 조부) 슬하에서 즐거워하여 효우가 천성에서 우러났다. 할아버지를 섬기며 어머니를 섬기고 형님을 섬기되 성효와 우애가 결전했으며 종족과 향당으로 더불어 화목하며 관용하였다. 일찍부터 가정교훈을 받아 성취함이 있으니 사람이 다 그 돈독한 뜻을 탄복했다. 갑술(甲戌 1574)년에 돈녕공(敦寧公)의 상사를 당하매 백공(伯公)이 승중(承重)이 되었는데 집상(執喪)에 예절을 다했다. 선조(宣祖) 정축(丁丑 1577)년에 문음(門蔭)으로 보직되어 신사(辛巳)년에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에 승진하고 인해 사헌부감찰(司憲) 다음페이지 계속 →

해동(海東 : 우리나라를 말함)에 沈氏는 청송(靑松)에서 나왔으니 휘 홍부(洪孚)가 시조가 된다. 고려조(高麗朝)에 벼슬하여 문림랑 위위시승(文林郎衛尉寺丞)을 지냈으며 휘 연(淵)을 낳으니 함문시후(閤門祗候)요 휘 용(龍)을 낳으니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문하시중 청화부원군(門下侍中 靑華府院君)을 추봉되었고 휘 덕부(德符)를 낳으니 호는 허강(虛江)이며 삼중대광좌시중(三重大匡左侍中)으로 청성군 충의백(靑城郡忠義伯)이 되었다.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좌의정(左議政)에 특진되었고 功으로 녹선(錄選)되어 청성백(靑城伯) 청성부원군이 되었으며 시호를 정안(定安)으로 내렸고 공훈은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휘 온(溫)을 낳으니 영의정 청천부원군(領議政靑川府院君)에 진급하고 안효(安孝)의 시호를 내리고 소헌왕후(昭憲王后

: 世宗王妃)를 탄생하였다. 휘 회(繪)를 낳으니 영의정(領議政)으로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을 봉하고 공숙(恭肅)의 시호를 내리었으니 三代가 정승을 하매 빛나는 위덕(偉德)이 나라 사기에 실려 있다. 휘 원(源)을 낳으니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으로 좌찬성(左贊成) 순충적덕 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증직하였으니 공에게 高祖가 된다. 증조의 휘는 순문(順門)이니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했는데 연산조(燕山朝)를 만나 화를 입었고 할아버지의 휘는 봉원(逢源)이요 호는 효창(曉窓)인데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병을 의탁하고 벼슬하지 않았으며 세리(勢利)에 담담하여 벼슬을 버리고 한정(閑靜)을 길렀다(養). 증직받아 세상에 명신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휘는 건(鍵)이요 호는 경성헌(警省軒)이며 젊어서

2009年度 秋季時享日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始祖	文林郎公(휘 : 洪孚)	10.26	9.9	月	靑松郡 청송읍 덕리 보광산
	中臺山所	10.26	9.9	月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二	閤門祗候公(휘 : 淵)	10.28	9.11	水	益山市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二	奉翊大夫公(휘 : 晟)	11.11	9.25	水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靑華府院君(휘 : 龍)	10.30	9.13	金	安城市 당왕동 산소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10.30	9.13	金	安城市 도기동 산소
三	判書公(휘 : 漣)	11.11	9.25	水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上護軍公(휘 : 卿)	11.11	9.25	水	"
四	靑城伯(휘 : 德符)	11.1	9.15	日	漣川郡 미산면 아미리 산소
四	靑城伯 配位 淸州 宋氏	11.3	9.17	火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都摠制公(휘 : 仁鳳)	11.3	9.17	火	"
五	判事公(휘 : 義龜)	12.1	10.15	火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五	知成主事公(휘 : 繼年)	12.1	10.15	火	光州市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五	지성주사공 配位 崔氏	12.2	10.16	水	全南 장성군 황용면 외곡리
五	仁壽府尹公(휘 : 澄)	11.3	9.17	火	全北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五	安孝公(휘 : 溫)	10.3	8.15	秋夕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산의실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五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10.31	9.14	土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五	淸원군(휘 : 淙)	11.24	10.8	火	坡州市 문산읍 사목리
五	현령공(휘 : 天柱)	11.15	9月末週	日	安東市 풍천면 인금리
五	돈제공(휘 : 天湜)	11.28	10.12	土	慶南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휘 : 灝)	11.18	10.2	水	原州 단계동 사천마을(설단)
六	좌랑 공(휘 : 溝)	12.1	10.15	火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六	애암 공(휘 : 涓)	12.3	10.17	木	光州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六	良惠公(휘 : 石雋)	11.6	9.20	金	龍仁市 포곡면 가실리
六	領中樞公(휘 : 澹)	11.17	10.1	火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六	恭肅公(휘 : 澹)	10.3	8.15	秋夕	坡州市 월농면 영태리 산소
六	靖夷公(휘 : 決)	11.22	10월첫째	日	龍仁市 양성면
六	증참판공(휘 : 孝鼎)	11.21	10.5	土	靑松郡 파천면 용덕리(설단)
六	연일공(휘 : 自鼎)	11.29	10월둘째	日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康主簿公時享(恭肅公養父) 陽曆 11월 7일(토) (陰曆 : 9월 21일)
(每年 陰曆 9월 21일 구미시 고아읍 예강1리 묘소)

府監)을 제수했으며 임오(壬午)년에 과천현감(果川縣監)으로 나갔는데 공정하고 청백하여 아전과 백성이 경복했다. 甲申 7월에 자친 상사를 당하여 백씨와 더불어 애환한 이 예에 지내어 거의 사경에 이르렀다. 기축(己丑)년에 교하현감(交河縣監)이 되었는데 과천(果川)에 있을 때와 같이 온 고을을 크게 다스리었다. 壬辰년에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을 배수하고 이해 첨정(僉正)에 승진되고 계사년에 강도(江都)에 호가(扈駕 :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피난 감)했다가 8월 13일에 전쟁에서 돌아갔으니 수가 겨우 44세이다. 아! 공이 문벌이 좋은 가정에서 출생하여 일찍 벼슬길에 나갔다가 그 쓰임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백씨께서는 형제에 애통을 감내하지 못하며 종족과 향당에서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고양군 목희리(高陽郡木稀里) 효창공(曉窓公) 묘하 임좌(壬坐)의 언덕에 안렴했다.

배위는 증정부인 무송윤씨(贈貞夫人 茂松尹氏)요 부친의 휘는 지서(之瑞)니 전적(典籍)이요 조부의 휘는 관(攅)이니 생원(生員)이요 증조의 휘는 삼락(三樂)이요 외조는 이위(李緯)니 광주(廣州)사람이다. 명종(明宗) 2년 정미(丁未 1547)에 출생하여 광해(光海) 6년 갑인(甲寅 1614)년에 돌아갔으며 공의 묘소 좌편에 합부하고 향년이 68세이다. 4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옥(旭)인데 무력으로 나타났으며 벼슬이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인데 준례로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증직하고 배위도 정부인(貞夫人)을 이증(地贈)했다. 만자제 부총관(副總管)의 초취는 평양 조광림(平壤趙光琳)의 딸이요 후취는 봉사(奉事) 안동 김흔(安

東金昕)의 딸인데 2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유석(儒碩)이니 통덕랑(通德郎)이요 다음은 유준(儒俊)이니 첨중추(僉中樞)요 장녀는 군수 김집(郡守 金集)에게 출가했으니 강릉(江陵)사람이요 다음은 군수 황전(郡守黃璉)에게 시집갔으니 상주(尙州)사람이다. 다음 자제는 돈(墩)이니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요 초취는 현감(縣監) 연안 이서린(延安李瑞麟)의 딸이요 후취는 동중추(同中樞) 해평황보인(海平黃輔仁)의 딸인데 5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유종(儒宗)이요 다음은 유홍(儒弘)이니 군자감정(軍資監正)이요 다음은 유광(儒宏)이니 부사과(副司果)요 다음은 유달(儒達)이니 첨중추(僉中樞)요 다음은 유적(儒績)이니 부호군(副護軍)이요 장녀는 가선 박득형(嘉善朴得亨)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절충 조이기(折衝趙以起)에게 시집갔다. 다음 자제는 창(昶)이요 호는 하곡(霞谷)인데 백부 일송상공(伯父一松相公)에 출계했으며 후에 군수가 되고 효행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증직하고 초취는 잘방 김명현(察訪金命賢)의 딸이요 후취는 진사(進士) 남양 홍윤(南陽洪堧)의 딸인데 2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유훈(儒訓)인데 유일(遺逸)로 진선(進善)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고 증직이 호조판서(戶曹判書)요 다음은 유행(儒行)인데 문과로 집의(執義)요 증직이 좌찬성(左贊成)이다. 장녀는 사부(師傅) 원진해(元振海)에게 시집갔으니 원주(原州)사람이요 다음은 통제사(統制使) 유정익(柳廷益)에게 시집갔으니 문화(文化)사람이다. 다음 자제는 흰(暄)이니 현감(縣監)이며 대호군(大護軍) 상산 황덕윤(尙山黃德潤)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유관(儒寬)이요 장녀는 참봉

권속(參奉權塾)에게 시집갔으니 안동사람이요 다음은 진사 강유(進士姜遊)에게 시집갔으니 진주(晉州)사람이요 다음은 진사 정세주(進士 鄭世靑)에게 시집갔으니 동래(東萊) 사람이요 다음은 판결사 김효건(判決事金孝建)에게 시집갔으니 안동(安東)사람이요 다음은 판관이경함(判官李慶鬻)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능히 다 기록 못한다. 삼가 공의 행장(行狀)을 안찰하건대 전에 비문(碑文)이 있었으나 그러나 찬술한 자의 성함도 잊지 않고 소략한 탄식이 있으므로 세덕(世德)이 민물될까 두려워하여 꺾루됨을 보충하고 유사(遺事)를 채습하여 참람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들어서 명(銘)을 하여 이르되

우리 선조(先祖)께서는 대대로 잠영(簪纓 : 관직이 높은 자의 복식)이 혁혁하였네, 성조(省祖 : 공의 작자의 선조 호)가 경성현(警省軒)이므로 이렇게 말함에 이르러서는 유서(遺緒)를 이음이 아름답고 밝았네,

효우가 근천하였으니 가성(家聲)을 추학시키지 않았네, 두 고을을 맡아 나가매 치적이 성대하였네, 강도(江都)에 호가(扈駕)하매 충의를 먼저 할 이가 없네, 쌓인 포부를 펴지 못하였으니 운명이 어찌하여 순절(殉節)에 그치었던가? 세상에 어진 덕택이 남았으니 4남 1녀를 두었네, 넉넉한 복록이 후세에 드리워서 자손에게 보이었네, 저기 묘소를 바라보니 옷과 신을 안장한 곳이네, 백세에 맑은 바람은 산이 높고 물이 깊게 흐르리라,

공이 돌아가신 후 여섯 번째 병자(丙子 1936)년 9월 상순 12세손 몽래(夢來) 공경하여 지음 - 끝 -

宜洛 會長任의 「나의 回想錄」을 읽고



名譽會長 沈宜洛

아침에 출근하여 보니 나의 책상 위에 책 하나가 배달되어 있었다.

개봉해보니 宜洛前會長님이 주신 회상록이다. 사실 나는 우리 대총회에서 15년간을 모시고 일을 해왔음에도 회장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들은 말로 前 署長이었다는 것 밖에 모르고 지내었는데 「回想錄」을 보내주시어 반갑고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다.

나는 보던 일을 다 접어두고 회상록에 심취(心醉)하였다. 회장님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생기고 6세에 다리가 골절(骨折)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으니 생애 첫날부터 시련의 연속이다. 회장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몇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시절과 경찰공무원생활 公共회사근무와 어업(漁業) 농축산과 조립사업과 끝으로 회사 창업과 閉業에 이르는 동안 그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회장님은 중학교의 진학을 할 수 없게 되자 고학(苦學)을 하기 위해 도일(渡日)하여 고학으로 취학을 하였는데 혼자서의 생활도 버거운 상황에서 동생(煥煥 : 朴正熙대통령 때 總務處長官)까지 데려다 공부를 시켰으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패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일련(一連)의 思想이 존경스럽기만 하다. 사실 나도 단신으로 상경하여 고학으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일들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찌 그 희열(喜悅)을 알 수 있으랴? 회장님은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44년에 귀국하셨다. 1년 후에 광복이 되고 그 해 10월에 경찰에 입문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1957년에 33세의 나이로 一級地 署長이 되었으니 고속진급을 한 것이다. 그것은 경찰재직 중 大邱文理學科 전문학원과 靑丘大學校 法科를 졸업한 성과일 것이다. 경찰생활 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6.25사변 당시 파출소를 습격했다는 사건에 연루되어 重犯罪者로 분류되어 사형을 받게 된 친구를 求命해준 일이다.

軍政下에서 배라를 살포한 사건으로 투옥된 학생을 出獄시키고, 고졸 후 무직으로 있던 집안동생을 맹아(盲啞)학교에 취직시키고 그 맹아학교에서 설립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모교의 교수와 학장까지 역임케 하는 등은 회장님의 평생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일 것이다. 특히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하였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 한다 “적선지가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회장님의 품성이 그러하기 때문 일 것이다.

15년간의 警察生活를 접고 사회에 나왔

을 때는 모든 것이 서툴기 짝이 없다. 사회로 나와서 한국관광 주식회사의 사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計量器組合·織物組合協會 전무이사과 이사장 등을 역임 할 때까지만 해도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여 하자가 없었으나, 問題가 일어난 것은 직접 사업을 하면서부터이다. 사업의 시작은 日新工業社[船舶用原動機製造業]를 창립한 것인데 2년 만에 閉社하고, 다음으로 三寶電氣, 三寶光學을 거쳐 漁船을 매입하여 어업에 뛰어들었으나 이 역시 결과가 좋지 않게 끝이 났다.

사업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노하우」로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옛 어른들의 재산은 “땅에 묻어야한다”는 가르침을 따라 수십평의 땅을 샀다. 농사 짓고, 소·돼지의 축산도 하고 한편으로 林業도하여 크게 일구게 되었다. 모처럼 큰 성과를 본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확장했어야 하는데 임야와 농지를 30억 원에 팔아 靑石商事(안경제조 수출)를 설립하고 열심히 운영하였으나 창업한지 9년 만에 완전히 사업을 접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30년간을 뒤돌아볼 새도 없이 열심히 뛰었으나 그 결과는 허무하다. 그러나 이 일은 개인의 成功(致富)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하나가 이어져 숨 가쁘게

돌아가던 新興韓國을 만드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으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經濟大國이 되는 초석이 된 것이다.

회상록은 등장하는 인물이 광범위하여 삼국지를 연상케 하고, 그 내용들은 추리 소설을 보는 듯한 흥미마저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本文에 명기된 年月日과 人名, 地名,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는 것은 少年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日記를 쓰셨거나 세밀하게 記錄을 남긴 것이 지금의 回想錄을 있게 한 原動力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하였던가? 그간에 회사용도로 있다가 버려졌던 얼마 안 되는 땅들이 40년을 거쳐 수십억원의 큰 재산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것이 회장님의 40년간의 기업을 접은 끝 결실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하다. “人間萬事塞翁之馬”라고 하였던가? 어쨌거나 회장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70여 년간을 뒤돌아볼 새 없이 달려와 한 가닥 큰 족적(足跡)을 남기신 것이다.

- 32 -

公 告

◎本 大宗會에서 근무(內·外職)할 분을 찾습니다.

- ▶업 무: 원고작성 및 宗報편집
- ▶연 령: 65세 이하(단 청송심씨에 한함)
- ▶접수기간 : 2009년 10월 31일까지

※상기의 요건에 적합한 분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

定宗2년(1400) 太祖의 넷째 王子 芳幹이世子자리를 넘보고 난을 일으키자 왕위에 야심만만하던 芳遠이 제2의 王子의 난을 일으켜 兄 방간의 군사를 무찔러 방간을 황해도 토산(兔山)으로 귀양을 보내고 이어 하륜(河崙)등의 주장으로 李芳遠을世子로 책봉하였다가 이해 11월에 上王太祖의 허락을 받아 王位에 오르니 이가 朝鮮 朝三代王인 太宗大王이다.

芳遠은世子로 책봉된 후에 토산에 귀양이 있던 회안대군(懷安大君) 芳幹을 전라도 安山郡으로 이치(移置)하라는 명을 받고 靑原君은 이에 따라 방간을 안산군으로 이치하도록 조치하였다.

太宗7년(1407) 3월에 태종이 仁德宮에서 주연을 베푼 후 부마 淸원군 댁에 들러 모처럼 남매간에 두터운 정을 나누고 돌아가기도 하였으며 태종8년 11월에는 경상도 절제사에 제수하시고 다음해 10월에는 경상도 시위군절도사(慶尙道 侍衛軍節度使)를 제수하였다. 이렇게 20여년간을 한결같이 돈독하게 지내시던 두 분께서 情義가 벌어지는 일이 생겨 이로 인해 천추의 한을 남겼으니 그 사건은 태종13년 가을에 일어났다.

太宗이 전라도에서 거행하는 강무(講武) 지정된 장소에 모여 將卒들의 무예도 연마하고 사냥도 하는 등의 행사에 거동 할 제 淸원군께서 배종(陪從 :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일)하게 되었는데 全州에서 잠시 체류하는 동안 任實(任實)에서 귀양살이를

太宗大王(李芳遠)과 부마 靑原君(휘 : 沈淙) - ②

하고 있던 회안군 방간으로부터 은밀하게 보내온 생강 한 상자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훗날 이 사실이 누설되어 사헌부(司憲府)로부터 不忠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탄핵을 받게 되었다.

상감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 말하기를 얼마 전에도 사헌부에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하니 죄인과 서로 내왕하는 것이 발견되면 법대로 다스릴 것이로데 형편을 참작하여 淸원군의 요청을 들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교하(交河)로 安置하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귀양을 가게 되었으니 이때가 太宗16년 11월이요 불운(不運)이 시작된 날이었다.

이때 사헌부에서는 漢城府事 沈溫과 첨지중제 심정(沈澄)도 沈淙의 불충에 연좌(連坐) 시켜 처벌해야한다고 들고 일어났으나 太宗은 兄이나 아우가 淸원군 淙이 한 일에 대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 당사자 심정은 이미 유배의 중벌을 내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하니 형과 동생의 연좌죄만은 모면하게 되었다.

며칠 후 諸功臣들이 대궐로 예궐(詣闕 :

대궐로 들어감)하고 상감에게 진언하기를 우리는 상감과 더불어 거사에 참여하여 정사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즉 사직(社稷)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죄를 사하여 주심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라고 풀어주기를 간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감께서는 내장차 병조판서와 공신도감에 이르렀으니 기다려 보라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六曹의 대간(臺諫)과 공신도감(功臣都監)이 淸원군의 제목을 들어 취조하기를 주장하여 옴에 상감이 전지하기를 이미 그 죄를 물어 교하로 유배하였고 이에 공신들이 주청하기를 淸원군의 죄를 너그럽게 사하여 달라하여 기다려 보라 하였는데 이제 또 죄를 취조하라 하니 이제 경등은 沈淙의 일로 더는 과인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諸官들이 끊임없이 법대로 처리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상계하며 나아가 회안군 父子의 죄상까지 들추어 함께 처벌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청하여 옴에 상감께서도 어쩔 수 없이 회안군 방간의 직첩을 회수하라 이르고 淸원군 심종(沈淙)도

황해도 토산으로 안치케 하라 하였다. 태종은 태종17년에 戶曹에 명하여 淸원군의 농토에서 도조를 받지 말도록 명을 내려 생활의 궁핍함을 덜어 주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태종18년 봄에 淸원군은 유배지 토산의 지방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으나 치료와 간호가 부실하여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얼마 안되어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그 생애를 마치니 연치가 42세요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왕후가 책봉되기 5개월 전이다.

세상을 떠나시던 날 난데없는 풍우가 몰아치고 심지어 우박까지 쏟아지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소한 일로 淸원군이 억울하게 세상을 뜨니 하늘도 무심치 않다 하였다.

- * 墓所는 과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慶善公主와 함께 쌍분으로 모셔져 있다.
- * 부마께서는 후사(後嗣)가 없고 따님 한 분을 두셨으니 서랑(사위)인 知敦寧府事 李明晨(栗谷 李珣의 五代祖)께서 外孫奉祀로 지금까지 591년 간의 時享을 奉行하여 오고 있다.

靑松報에서 발취

- 32 -

< 끝 >

- * 時享일은 매해 음력 10월 8일 인데 太宗會에서는 매년 享祀에 참여하고 있다.
- * 太宗會에서는 墓所에 墓碑하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중 금년에는 德水李氏 門中과 상의하여 묘갈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청송심씨 대동세보는 1545년 을사보를 최초로 발간한 이후 2002년 경진보까지 총 11회 발간되었습니다. 1998년 5월 대동세보(경진보) 발간 작업에 착수한 후 4년여에 걸쳐 수단접수·정서·전산입력·교정작업을 반복한 후 최종적인 편집과정을 거쳐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부)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하여 대동세보 발간과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www.csshim.or.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에는 대동세보 전체를 재편집하여 대종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족보'에 등재하여 누구든지 쉽게 족보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동세보를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인터넷 족보 추가등재 신청 접수

세월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언제쯤 대동세보를 다시 발간할 것인지 누구도 말할 수 없으나, 새로운 후손이 태어나고 또 기 등재된 사람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대동세보에 추가등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족보를 개설한 것이며, 대동세보에 참여하지 않고 파보에만 등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변동사항을 족보에 등재하려고 해도 인터넷족보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등재를 원하

는 사람들로 부터 언제든지 수단을 접수하기 위하여 대동세보와 별도로 발간된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약은공, 수운판관공 파보와 1925년경 북한지역(함흥)에서 발간된 전서공과 정랑공 파보의 추가등재 작업을 2008년 3월초에 시작하여 전산입력과 교정작업을 거쳐 2009년 9월 인터넷족보에 모두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수단을 접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터넷족보에 등재할 계획이니 홈페이지에서 ㉠ 수단작성 방법, ㉡ 수단용지(견본), ㉢ 수단용지(갑, 을) 등 추출하여 확인한 후 수단작성 방법에 따라 수단용지에 기재하여 대종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종 회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뺨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종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종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濟州牧使公 諱 樂洙 (휘:낙수)의 行跡

[14世 晚沙公(領議政)의 6代孫]

正祖17年 어느 날 上이 沈樂洙를 접견하고 말하기를「탐라 어사(耽羅御史) 沈樂洙는 들으라 樂洙는 지금부터 탐라(제주도)로 내려가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장물을 취득한자를 밝혀내는 일 이외에도 섬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경내를 두루 살피어 문무인재를 시험 보여 뽑는 등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거행하여 특별히 파견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하고 제주 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를 제수(除授)하였다.

공은 탐라에 도착하자마자 윤음(綸音 : 임금님의 말씀)을 내렸다. 上께서는「아 너희 제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로 시작하여 장문의 윤음을 내렸는데 「너희 들은 먼 곳에 살아도 나의 백성이요 가까운데 살아도 나의 백성이니... 그러므로 굶이 소반에 올라오면 애써 재배한 너희 들을 생각하게 되고 말뚝이 궁 뜰에 들어오게 되면 분주하게 기른 너희 들의 고초를 상상하는 것이다. 더구나 토지는 메마르고 척박하여 탐라의 세 고을은 항상 흉년을 만나게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항상 사서 쓴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보는 마음이 어찌 육지백성들에게 비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탐라에서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을 때 부패한 관리들은 토구질에 바쁘다는 대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다가 마침내 上께서는 「흉문관 교리 심낙수를 어사(御史)로 삼아 그 곳에 보내며 이르기를「죄가 있고 없고를 빠뜨리지 말고 과장되지도 말게 조사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하셨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이제 생각해 보니 제주에서는 어사를 12년 만에 보게 되었으니 어사가 가는 길에 그간 각가지 누적된 폐단을 찾아내는 일, 고통스런 신역(身役 : 勞役이나 苦役)을 바로잡아 없애는 일, 모든 옥사(獄事 : 반역자나 중범죄 자)를 심리하는 일, 착한 사람을 표창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일, 文武와 시험을 보여 인재를 뽑는 일, 전지(田地)와 포구(浦口), 군사문제 그리고 말에 관한 정책을 신칙(申飭)하고 격려하는 일, 고을 수령과 진영 장수의 잘 잘못에 따라 강등시키거나 올려주는 일 등에 대하여 비변사의 신하에게 명해 조목조목 열거해서 그가 가는 길에 가져가게 하였으니 너희 들에 있어서는 다시없는 기회다. 너희들은 이렇게 못 잊어하는 나의 마음을 알거나 하는가? 내년에는 곳곳에 보리농사가 풍년이 들고 바다에 나가는 배는 사람마다 잘 다녔으면 하고 너희들을 위해 축원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耽羅어사로 4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上께서 除授하기를「제주 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

史) 沈樂洙를 특별히 제수목사를 삼는다」하였다.

공이 上께 아뢰기를

「신이 세 고을을 순행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말하기를 윤음(綸音) 책자를 모두 듣거나 읽었습니다. 전 하께서 이토록 지극히 섬사람들을 위하시고 흉년이 심한 작년에 육지에서 곡식을 날라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이 메어 흐느끼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곡식을 옮겨오고 대신 미역을 옮겨갈 때 이런 일을 이용하여 농간을 부리는 자들이 있고 또 종종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니 죄 없는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되어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필요량을 충족하게 나르다 주고 또 미역을 그만큼 날려 와야 되는 일은 그만큼 희생도 많을 것이니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심한 흉년이 들면 내륙(內陸)에서 곡식을 들여오지 않으면 살아나갈 방도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이 순시하는 동안 받은 100여 통의 정장(呈狀)에 보면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거두어 들인 잘못된 관례와 지탕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폐단은 날날이 조사해서 개혁하고 있습니다.

공이 또 前牧使 李喆運의 죄를 논하여 아뢰기를 「대체로 세 고을의 굶어 죽는 사람이 600여명에 이르러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고 거둬 흉년이 들어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官長이란 자들이 옮겨온 곡식과 환곡(還穀 : 官倉의 官穀이나 軍資穀을 백성들에게 봄에 풀어 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으로 이익을 취하고 마구 낭비하고 굶주리는 사람의 수와 진흙(賑恤 : 흉년에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줌)한 곡식의 수량을 허위로 기록하여 숫자 채우는 따위의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더구나 진흙하고 남은 곡식을 명목 바꾼다는 핑계로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는 때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딴 곳으로 옮기다 배가 침몰하여 곡식을 축내고 이것을 숫자를 채우느라 또 축내고 또 남은 곡식을 아전들이 빼먹은 수량을 채워주고는 백성과 똑같이 진흙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어려운 백성을 살려야 하는 곡식으로 배를 채우고 마구 유용하였으며 굶주린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서 남은 돈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준 것과 관련하여 백성들이 의심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말썽과 백성들의 원망은 모두 여기에서 연

유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총을 가지고 쌀을 산 것이라던가 녹피와 백납으로 다른 물건을 사들인 것들은 전 목사가 저지른 범법인 것입니다.」하였다 하니 上이 전교하기를

공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백성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대체로 말과 글이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폐단은 편리한데로 바로잡아서 섬에 사는 백성들이 삶을 즐겁게 해주고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도록 하라 이런 때에 만일 수령을 서둔 사람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 주겠는가? 공을 승진시켜 牧使로 임명할 것이니 직무를 잘 수행하라 하고 이제 공이 목사로 임명되었으니 휴대하는 밀부(密符 : 留守, 監司)는 前牧使가 받았던 대로 그대로 휴대하도록 하라. 전 목사의 죄를 열거하여 따진 것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전 목사 李喆運을 잡아다 공초(供招 : 범죄를 취조함)를 받아서 엄하게 처벌하겠다. 공이 위엄을 갖추고 그곳의 軍校와 아전으로서 포악한 짓을 도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엄하게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고 사람들이 많이 굶어죽은 곳에 가서 祭壇을 설치하고 위령제를 지낸 다음 고아와 과부들을 모아 위로하고 장문(狀聞 : 임금께 고함)하라 하였다.

정조18년 3월 8일

제주목사 沈樂洙가 상소하기를 생각컨데 제주도는 말과 굴을 생산하는 곳으로 진실로 이롭게 쓰이나 해구(海寇 : 海賊)가 자주 침몰하여온 곳이니 조정에서는 이런 점을 알고 출중한 武臣으로 목사로 삼은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곳은 대체로 武官을 등용하였으나 때로는 文官을 기용하기도 하였는데 武臣만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재물을 굶어드리는 일이 점점 많아졌으며 심지어 미역이나 가죽까지도 사들였다가 비쌀 때 파는 장사치처럼 하여 백성들이 官長을 존경치 않으니 일이 생겼을 때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제주는 우리나라의 첫 관문이니 만치 엄히 수비를 하여 나라를 튼튼히 방비해야 되는데도 결원이 되어도 충원을 하지 않고 국방을 게을리 하니 제주목사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2개의 현까지도 문벌과 명망이 있는 武臣으로 뽑아주시고 장래가 있는 젊은 武臣을 등용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라고 하였다.

*本文은 濟州道 濟州東洋文化研究院에서 보내온 文獻(王朝實錄)中에서 拔取한 것임.



청송심씨 “용인종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74-3번지

- ◇ 전화 : 031-321-2401
- ◇ 대표자 연락처 : 017-238-7705 심재형
- ◇ FAX : 031-338-8958
- ◇ 이메일 : cim77@paran.com

용인종회 회장 심우인

理總監副會
事務事長長
... ..
鵬斗光載文宗
漢漢輔先輔漢
春載鐵昌漢
化輔鏞漢

參判公派宗會
(諱:挺世忠北地域)

6.25전쟁이 휴전된 날(7.27)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한 미국을 보며 당사국인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56년 전 1953. 7. 27 북한 괴뢰집단의 불법침입으로 인한 전쟁이 3년 1개월 만에 유엔군최고사령관인 클락 대장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인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팡덕희 등이 정전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일 22시부터 정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의 전쟁으로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도 안 되어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군 16개국의 지원전투병력 341,695명(연인원 1,938,330명)의 참전으로 다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만회하고 그 위력으로 한반도 경까지 북진하였다가 1950. 10. 17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1.4후퇴) 수도 서울을 또 빼앗기고 37도선까지 밀리는 수난을 당했다.

이때는 미국정부에서 조차 “중공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으며 제주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중공군의 3차공세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이도 아군과 국제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우세한 화력을 이용한 격작전을 위주로 반격을 감행 1951. 3. 18 수도서울을 재탈환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이의 전투기간 중에는 유엔군 참전병력 중 미국이 88.5%에 해당하는 302,483명(연인원 1,789,000명)이 참전하여 3년 사이에 전사자 36,940명 · 부상자 92,134명 · 실종자 3,737명 · 포로 4,439명 등 합계 137,250명으로 참전 전투병력 정원(302,483명)에 비하여는 45.3%에 해당하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중 미국의 참전자 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및 클락 유엔군사령관 벤프리트 제8군사령관 등 고위층 자체 142명이 참전

하였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의료지원 5개국(근무인원 501명)을 포함한 21개국의 지원과 우리 국민이 총괄기하여 전후방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처 하였기에 두 번이나 빼앗겼던 수도서울을 탈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 와중의 특기 할 사항은 청장년도 기피를 하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아수라장의 전쟁터에 참전의무도 없는 어린아동(14세~17세) 1만 여명이 참전하여 이 나라에 면면히 흘러내려온 민족정기의 표출에서 비롯된 애국정신을 과시한 소년·소녀지원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전쟁일화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하여는 나라로부터 특별한 보훈이 없다. 그러나 정작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국가들에 대하여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도 하기 전에 미국의 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민주당 찰스 랭글의원을 비롯해 61명이 공동발의 한 **한국전쟁참전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을 지난 7. 21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의 국기게양법안을 수정, **한국전 휴전일인 7월 27일에 성조기를 조기 게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과연 우리는 56년간 무엇을 했는가? 참으로 괴롭고 부끄러운 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 참전자의 희생을 기리는커녕 전후세대의 안보의식마저도 날이 갈수록 잊혀진 전쟁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전한지 반백년이 지난 6.25참전 세대는 국가로부터 최근에 명칭만 국가유공자로 하여 변변치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나 이들은 다 80대 전후의 노인이 되어 하루가 다르게 기력소진으로 성인병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그 중에는 전술한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나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들 소년·소녀병은 나라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허수아비도 갖다 놓아야 할 판에 학도병·유격대·첩보대·특공대·의용군·소년병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국일념의 사명을 띤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한 참전으로 이 기간의 참전은 공헌과 희생을 따질 여지가 없는 참전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행정과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1951. 2. 28과 동년 3. 16 두 번에 걸쳐 이승만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귀가조치 특별 담화는 법령은 아니더라도 행정수반의 장으로서 특별히 발령한 것으로 구속력이 있어 국방부는 당시 계급과 군번이 없는 비정규군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조치 하였다.

그러나 정작 참전의무 없이 국군이 된 소년·소녀병만은 전역조치 시켜 학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발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인하여 이들 소년·소녀병은 3년 전쟁을 다 치르고도 1~2년 후에 제대를 하였으니 되돌아 갈수 없는 면학시기를 놓치고 낙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아무런 예우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번영을 누리게 된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보은과 보훈을 찾아 한국전 지원국에 대하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대처할 것이며 안으로는 소년·소녀병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에 재조명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6.25참전소년지원병전우회
수도권본부 회장 심상은
<대중회 부회장>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岳隱公派 20世 諱 沈能奎(字 星五) 公께서는 2005년 8월 15일(대한민국 건국포장 및 훈장추서) 묘지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리 두덕이 골에서 2009년 7월21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게 되어 그 직계손과 친지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에 모시는 안장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 碑文(앞면)

한학자로서 후학에 전념하시다가 일제침략과 만행에 격분하여 항거하시고 겨레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서서 헌신적으로 한 몸 받치었으니 가슴에 매친 한과 분노를 잊으시고 이제 자주대한민국 품에서 고이 잠드소서 장한 의거와 충절은 민족과 자손에게 귀감이 되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 碑文(뒷면)

- 【약 력】**
- 1850년 4월 7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출생
 - 1897년 12월 29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졸
 - 1896년 한학자(유교집 소장) 赤遠日記 : 일제침략 만행에 격분하여 의전활동 ‘무신창의 병신창의 乙未사변’ 시 유생들로서 의진을 결성하여 왜놈들과 싸운 장한 의거와 충절을 기록한 책

- ◎ 主孫
- 배위 : 김기락(의성 김씨)
 - 子 : 沈宜稔 子婦 : 김희락 노남희
 - 사위 : 신상두 홍재구 김진흙 김병태 민봉기
 - 손자 : 沈璘澤 孫婦 : 남상조
 - 손녀 : 심순남 심능희 심갑택 심동자 증손자 : 沈相根
- [자료제공 22世 종손 심리택]

靑松沈氏 谷城宗會 夏季修鍊大會 開催 (仁壽府尹公 都正公派 宗會)



2009년 8월 22일(土)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리 순자강(섬진강 상류)이 U자형으로 감돌아 흐르는 명승지에 위치한 9세조 도정공 휘 순(都正公 諱 淳) 할아버님 묘정과 제실 백호제(白湖齊)에서는 170여명 일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宗人수련회가 열렸다. 이른 아침 할아버님 산소 앞에 조촐한 제수로 고유제를 올린 후 동곡 沈愚慶 前 宗會長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고, 오전 일정을 마친 후에는 전 종원이 함께 하는 오찬이 있었으며, 이어서 가족단위로 다른 두 곳 先祖님 산소에의 성묘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행사의 의의는 다음의 축문에 잘 드러나 있다.

▷ 告由祭 祝文

오늘로 都正公 할아버님께서 작고하신지 48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후손들은 머리 숙여 할아버님 내외분을 추모하고, 宗族간에 친목을 다지면서 우리 청송심씨의 뿌리를 알고 역사를 배우고자 이 곳 백호제(白湖齊)에 모였습니다. 후손들에게 무궁한 발전과 홍복(洪福)을 내려주시기 앙망하면서 변변치 못한 제수로 주찬을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2일
도종공파 종회장 16대손 正植 재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 ①

대중회 부회장 심 갑 보



엑셀런스 발행인이 만난 CEO -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

신사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다. 삼익THK의 최고경영자인 심갑보 대표이사 부회장에게는 더욱 그렇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끊어오르는 그의 열정과 배움에 대한 열의는 젊은이들마저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다. 상무이사로 경영계에 처음 발을 내딛은 지 올해로 40년, 대표이사직만 30년 가까이 수행해 오고 있는 심 부회장. 지난 3월 주총에서 재신임을 받아 2012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면서 삼익THK의 역사도 하루하루 새롭게 쓰고 있다.

Interview 유승용 Editor 양준영 Photographer 김성호

▶ 유승용(엑셀런스 코리아 발행인) (이하 유승용) : 요즘 만나는 CEO마다 어렵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CEO마다 나름의 과제로 안고 밤낮으로 고민하는데 부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최근에 좀더 주력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지요?

▷ 심갑보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 (이하 심갑보) : 저는 임직원들에게 호경기에도 망하는 기업이 있고 불경기에도 흥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결국 CEO의 역량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CEO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기업 활동의 방향과 운명이 정해집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를 하나의 기회로 여겨왔습니다.

삼익THK도 처음에는 주로 공업용 줄(File)을 생산하는 영세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 들어 경영에 참여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 외형이 1억원에 채 못 미쳤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로 1,62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금은 중견 기업으로 도약했지만 출발은 삼익공업이라는 대구의 자그마한 줄(File) 공장이었습

니다. 1972년에 삼익쌀통 등 가정용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품목이 보다 다양화됐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업종 변환을 모색하게 된 동기지요. 당시 기계공업과 관련한 자동화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 IM가이드(직선운동 베어링)를 일본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시장공략에 성공하면서 IM가이드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일본THK로부터 기술 제휴 및 자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공장을 건설하며 자체 생산에 돌입했고 IM가이드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신 있는 품목, 즉 핵심 역량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폈습니다. 경쟁력 없는 품목, 시장성을 상실한 품목은 과감히 매각하거나 독립 경영하는 자회사에서 생산토록하고 IM가이드를 중심

으로 한 자동화 관련 부품과 창업당시부터 생산해오던 줄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IT산업, 반도체 등 유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삼익THK도 급격한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내실경영

▶ 유승용 : 말씀을 듣고 보니 삼익THK는 위기관리경영이 빛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관리 시스템 외에 또 다른 성공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심갑보 : 적기에 주력사업을 전환한 것이 첫째 비결이라면, 둘째는 영업방식에서 대기업과 차별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통 경로의 문제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대리점 체제의 영업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어렵사리 뚫은 영업망을 뒤늦게 뛰어난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실수 요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해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유대관계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00여 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 빠른 업종 선정과 전환, 제품 판매 경로 차별화 이 두 가지가 핵심 비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채권 관리입니다. 영업 행위는 판매, 수금, 회전을, 거래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판매 신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판매하다보면 불량 채권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대손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자칫 흑자도 도산할 수도 있어 내실 있는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주로 제약회사들이 비교적 채권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그들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채권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대손율이 0.1%로 낮습니다. 영업 정책도 남달랐다고 봅니다. 거래처에 대한 여신 관리로 외상 매출 한도액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외상 판매하는 균형 영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00가지가 넘는 영업 관련 각종양식을 제가 직접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이런 변화를 싫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여개에 이르는 거래처와 100여 명이 넘는 영업사원을 관리하려면 합리적인 영업 기법은 필수입니다. 현재는 모든 영업 계수를 전산화해 관리함으로써 전국의 영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업 관리 시스템 정착으로 양질의 거래처 확보와 대손율을 최소화해 이익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결과, 무엇보다 회전 일수가 빨라졌습니다. 기존에 1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60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 유승용 : 삼익THK의 주력 품목인 IM 가이드는 언제, 어떻게 도입하게 됐습니까?

▷ 심갑보 : IM가이드는 CNC선반, 머시닝 센터 등의 공작기계와 자동화 설비 및 직교좌표 등의 산업용 로봇, 반도체장비, LCD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의 IT산업,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각종 설비, 의료장비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입니다. 처음에는 일본THK에서 제품을 들여와 공급했습니다만 이렇다가 일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다 잠식하면 큰 일 이겠사옵어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일본THK로부터 기술 제휴와 자본 참여를 이끌어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THK는 정밀부품 시장을 최초로 개척한 세계굴지의 기업입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1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당시 사장이셨던 현 명예회장께서 전문지 기사에서 정보를 입수해 산업은행 일본 시찰단에 참가해서 일본 본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침 통일중공업에서도 일본 THK와 제휴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제휴 협상을 위해 통일중공업에서는 몇 주에 한 번씩 담당자가 일본 THK 를 방문했는데, 명예회장은 일주일도 멀다 하고 가셨습니다. 설득 끝에 일본 THK는 일단 5,000만엔 물량의 제품을 공급할 테니 한번 받아보라고 했는데 실적이 쫓아 계속 거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THK 진출한 나라마다 100% 독자출자방식을 고집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저희와 합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정도경영을 직접 보면서 신뢰관계가 굳건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다음호에 계속>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홀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人事

상단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 추진단
 재민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본부, 인터넷기술
 달훈 : 국세청(과장급) 국세청 감사담당관
 재민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술 본부장
 원태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정보 보호기획
 영진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정책연구팀장
 영섭 : 문화재청(과장급) 발굴제도과장
 용구 : 현대해상화재보험(상무승진) 부산지역본부
 천보 : 현대해상화재보험 강남보상 서비스센터
 무경 : 환경부(과장급)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재용 : 연세의료원 의과대학 임상시험센터소장
 在桂 : 법무부 대구지검 서부지청 1부장
 在千 : 법무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
 雨廷 : 법무부 대전지검 부부장
 은석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성보 : 가톨릭대 의대교육 제2부학장
 태보 : 송실대 수중음향통신 연구소장
 승진 : 경북대 출판부장
 종섭 : 삼성서울병원 교육수련부장
 재현 : 한국석유공사 기술관리팀장
 재용 : 신한은행 타임스퀘어 지점장
 재홍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4급

理事會費

康燮	50,000	2009	金浦
載求	50,000	2010	三陟
鍾燮	100,000	2008~2009	堤川
左輔	50,000	2009	仁川
能光	50,000	2009	青松有司
相燻	50,000	2009	青松有司

訃告

沈完燮(大宗會 指導委員 81세)
 께서 8월 26일 현대아산병원에서
 別世 하셨습니다.

아들 : 載于 載凡 載源

宗報贊助

安孝公宗會	10,000,000	
慶南 陝川宗會	200,000	
鎭川 月村宗會	100,000	
善山宗會	200,000	
재천	30,000	곡성
경석	100,000	가락동
윤보	50,000	부산
재철	30,000	양주(회천)
효섭	50,000	수원(호매실)
相煥	30,000	독산동
載鴻	30,000	수원
상선	50,000	방이동
재익	50,000	光州
영택	100,000	등촌동
길섭	50,000	김포(약산)
희보	30,000	시흥
만복	30,000	단양

特別贊助

安孝公宗會 300,000 대전뿌리교육

바로잡습니다

▶종보78호
 •종보 78호 3면 하단 漢詩 壬午年 頭感을
 壬戌年 頭感으로 바로잡습니다.

한벽당(寒碧堂)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어느 먼 인걸들이 시문(詩文) 걸고 가시었나
 후인은 까막눈에 화답이 허방인데
 유수(流水)는 난만히 푸른 층계 여울여울
 사색한다.

벼랑길 고란초길 우지지는 억새소리
 부평(浮萍)에 잿빛 한 점 비오리로 해작일 제
 달뜨면 신선이 온다기 술상 하나 차린다.

*한벽당: 전주에 위치한 유서 깊은 누각



심선욱군 美 SAT 만점



군산출신인 심선욱[심재왕씨(서원
 건설산업 대표이사)의 2남]군(18세)이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만점
 (2400점)을 획득했다.

군산신풍초와 군산중을 졸업한 뒤
 한국의국어대부설 龍仁外高 3학년에 재학중인 선욱군
 은 지난해부터 독해와 작문, 수학으로 구성된 SAT를 준
 비했고, 이번 성과로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교두보
 를 마련했다. 沈君은 "학업에 매진해 우리나라를 금융
 강국으로 이끄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꿈이다"라고 포
 부를 밝혔다.

송금안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 인터넷 족보 수단금 계좌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종회)

청 송 심 씨 대 종 회
 전화 : (02)2267-7857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燻 能光	010-6889-7733 010-9236-2331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載集	011-676-1150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學		010-7136-3572
淸 州	淸 주 회 관			043-286-7857

正言公派鎭川月村宗會

顧 問 義祚 採洙 敬燮
 會 長 龍鎭 鎮泰
 副 會 長 相錢 鎮泰
 監 事 載仁 星昊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名譽會長 相高
 會長 載德 載玉
 副會長 孝燮 載玉
 總務長 殷燮 載玉
 事務長 載成 相浩
 理事 相燻 仁燮 東燮 禮燮
 球燮 仁燮 基燮

陝川郡宗會任員改選

顧 問 義祚 採洙 敬燮
 會 長 龍鎭 鎮泰
 副 會 長 相錢 鎮泰
 監 事 載仁 星昊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名譽會長 相高
 會長 載德 載玉
 副會長 孝燮 載玉
 總務長 殷燮 載玉
 事務長 載成 相浩
 理事 相燻 仁燮 東燮 禮燮
 球燮 仁燮 基燮

水使公派咸安宗會 任員名單

顧 問 義祚 採洙 敬燮
 會 長 龍鎭 鎮泰
 副 會 長 相錢 鎮泰
 監 事 載仁 星昊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總 務 在洙 相旭 鉉燮 大容 憲洙

名譽會長 相高
 會長 載德 載玉
 副會長 孝燮 載玉
 總務長 殷燮 載玉
 事務長 載成 相浩
 理事 相燻 仁燮 東燮 禮燮
 球燮 仁燮 基燮